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6 | Summer  
vol. 57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http://www.caupharma.com)



# Contents

##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6년 여름호

### 시론

- 3 첫 설레임과 함께한 흰 가운의 무게, 약사의 역할을 묻다. 정동만(42회) 동기회장

### 동문회장 인사말

- 5 시대의 변곡점을 기회로 바꾸자 김정수(26회) 동문회장

### 동문회소식

- 6 화보
- 10 서로 소통하고 한 뼘만큼의 주장을 줄여 소통과 화합의 2026년이 되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9차 정기총회
- 14 통찰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2026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16 전지 이사회 총주忠州를 가다 약학대학 동문회 2026년도 초도이사회

- 18 하나되는 동문회 49년의 세월을 잇는 푸른 필드 위의 화합 2026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마치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골프대회 준비위원회

### 약국도움이야기

- 22 마이크로바이옴 장-뇌축 이론 microbiome gut-brain axis; MGBA 편집위원회

### 애도사

- 32 [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손의동(22회) 명예교수

### 36 회비내역

### 38 만평

### 39 장학기금

### 40 편집후기

### 문학산책

- 28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감정의 정령' 티니핑들을 만나다 항공용(11회) 초대 편집위원장

### 특별기고

- 34 익숙한 현장을 떠나, 더 깊은 인연의 길목으로 이경은(43회) 신임 사무국장

### 학교소식

- 35 신임 학장 및 학부장 취임

- 30 나라는 가수 in Spain - 마요르카 대성당의 추억 박희용(23회) 편집위원

## 첫 설레임과 함께한 흰 가운의 무게, 약사의 역할을 묻다.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도심의 어두운 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약국. 그 유리창 너머로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것은 정갈하게 다려진 흰 가운이다.

대한민국의 약업에 있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입학하고 실험실에서 처음 입어본 가운. 그리고 졸업 후 첫 약국에서 환자 앞에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갖춰 입던 가운.

누군가에게는 그저 위생을 위한 작업복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흰 천 안에는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역사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엄중한 선언이 담겨 있다.

새삼 약사윤리강령을 가만히 떠올려 본다.

하나, 약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둘,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 위생에 대한 조연자가 되어야 한다.

셋, 약사는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 약사는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품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다섯,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 동 만(42회)  
동기회장

이런 약사윤리강령을 다짐하는 우리 약사들의 가운은 단순히 의복의 종류가 아니다. 사적인 개인에서 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인으로 존재가 변화하는 '전환의 상징'이다. 우리가 가운의 깃을 바로 세우는 행위는 곧,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매일 아침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다.

오늘날 대한민국 약사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의약분업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갖추지 못한 성분명 처방 및 여러 제도의 미비로 인해 갈수록 문제가 커지는 약국 역할의 왜곡,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상태를 도대체 알 수 없이 단지 약만을 배달하는 비대면 투약, 약을 다루는 법적지위의 애매함과 비완결성으로 인해 점점 더 난립하는 한약사와 한약국들, 스스로 약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벗어 던진 채 의약품을 상품으로만 다루는 창고형 약국, 그리고 앞으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 올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약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지에 대한 문제까지.

하지만 이러한 격랑 속에서 우리가 입은 가운은 환자와 약사를 잇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신뢰'의 매개체이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전인적(全人的)인 케어'의 역할이 된다.

환자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와 마주하는 흰 가운은 "약국이 내 건강의 문제와 비밀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무언의 확신을 준다고 생각한다.

가운은 때로 거주장스러운 구속처럼, 별 의미 없는 관습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운으로 상징되는 약사의 모습은 약업(藥業)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숭고한 우리만의 천직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징표이다.

대한민국 약사들에게 가운은 '살아있는 윤리' 여야 한다. 흰색이 상징하는 청렴함과 정직함이 약봉투 속에 고스란히 담길 때, 약국은 비로소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 라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가운에 묻은 얼룩은 씻어낼 수 있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묻은 얼룩은 씻어내기 어렵다. 오늘 입은 그 가운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기분 좋게 짓누르길 기대해 본다. 그 무게야말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훈장이기 때문이다.

## 시대의 변곡점을 기회로 바꾸자



김정수(26회)  
동문회장

제가 교정을 나섰던 1982년 이후, 약업계가 걸어온 변화의 흐름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약분업의 시행,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보험 수가 제도, IMF 사태, 한국 API 산업의 쇠퇴, IMF 외환위기, 바이오 의약품의 등장, 코로나19 팬데믹, RNA 백신의 개발, 팬데믹 이후의 엔데믹 전환,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온 시의 출현까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수레 바퀴 속에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업계의 굽직한 변곡점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정점을 미리 읽고 선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왜 당시에는 다가오는 흐름의 변곡점을 읽어내지 못하고 보다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또한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에 대한 성찰은 곧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위안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시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 발전은 약국의 영업 방식, 제약산업의 구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의약품 수요 구조와 품목 구성, 나아가 약사의 직능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생존과 성장, 그리고 약사 직능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물론 그 해답은 각자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인텔 CEO 앤디 그로브가 말한 “봄이 오면 눈은 가장자리부터 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는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먼저 시작되어, 어느 순간 중심부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용히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하며, 변화의 신호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미 늦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선제적 판단과 과감한 행동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변곡점 앞에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동문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교류하며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것입니다. 혼자 통찰은 한계가 있지만, 동문들이 쌓아온 다채로운 경험이 축적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대의 변곡점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 약대 동문들이 언제나처럼 약업계의 흐름을 선도하고, 변화의 파도를 타고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주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01	02
03	04

05
----

12월 12일\_ 고문단회의

12월 14일\_ 여동문회 송년회

1월 15일\_ 용인특례시동문회

1월 29일\_ 편집위원회의

1월 31일\_ 정기총회







3월 27일\_ 장학기금운영회의 개최

3월 28일\_ 도봉강북동문회 모임

3월 29일\_ 초도이사회

01

02

03





4월 15일\_ 김정수 회장  
대한민국 산업대상 산업통상부 장관상수상

4월 26일\_ 골프대회

4월 30일\_ 2026년도 1학기 장학금수여식



01

02

03



# 서로 소통하고 한 뼘만큼의 주장을 줄여 소통과 화합의 2026년이 되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9차 정기총회

동문회 차기 회장에 이해룡(28회) 동문 선임  
2026년 예산 1억 9,018만원 승인



2026년 1월 31일 삼성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9차(2026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약학대학 동문회 25대 집행부의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자리이며, 또한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실무적인 모임의 장이기도 하다.

행사장 입구에서 김정수(26회) 회장, 김인혜(29회) 여동문회장과 함께 이해룡(28회) 차기 회장이 나란히 서서 도착하는 모든 동문들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정중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동문회에서 여러 동문들이 접수를 맡아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행사장은 117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시작부터 거의 만석을 이뤘으며, 따라서 별다른 시간의 지체없이 물 흐르듯이 시작이 되었고, 김만석(43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전반적인 진행을 이끌었다.



김정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학교가 벌써 70주년이 되니 세대간 차이가 2세대 간격으로 간극이 커서 소통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모든 동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의견을 들어 준다면 모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서로



소통하고 한 뼘만큼의 주장을 줄여 소통과 화합의 2026년이 되기를 소망했다.

특히 환영사 말미에 특별 제안을 통해 동문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동문에게 2027년도 정기총회에 서 상과 푸짐한 부상을 약속하여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은 축사에서 “우리 약학대학 동문들은 연구실과 강의실에서의 치열한 탐구는 물론 산업과 의료현장, 공공영역 전반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다”고 치하하며, “대학본부 역시 약학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인프라 확충,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 산업 및 의료현장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약학대학이 미래 보건의료의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동문회 **김부섭 동문회장**은 “중앙대학교가 장기적인 발전을 꿈꿀 수 있도록 동문들이 기부금을 더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며 중앙대학교 17대 총동문회가 열심히 일하는 동문회, 많이 찾아가는 동문회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지역 동문회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특히 접근성이 어려웠던 총동문회 사무실을 학교 앞으로 이전하여 동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광우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우리 약학대학은 동문 여러분의 헌신과 성취 위에서 성장해 왔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해 온 동문 여러분의 발자취는 모교의 가장 큰 자산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치하하며, “앞으로도 동문회가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활발히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며, 약학대학 역시 동문들의 든든한 모교로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에게 총장 감사패 전달, 박은희 실장을 명예동문으로 추대

이어 각종 활동을 통해 학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문들에게 공로패가 수여 되었으며, 특히 삼진제약 조의환 동문에게 약학대학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 기반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등 약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로 총장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약학대학 동문회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실질적인 살림을 이끌어 온 박은희 실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 말로 사임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의 공로를 기려 명예동문으로 추대하며 명예동문상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부 행사 후 잠깐 휴식시간을 가져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동문들이 반가운 덕담이 오갔으며, 특별공연으로 경쾌한 가야금 연주와 중후한 남성 4중창에 이어 약학대학 재학생 댄스동아리 유니커스의 기념공연이 펼쳐져 총회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공식행사의 2부에서는 회무보고와 2025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25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6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및 발전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핵심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

수상자 명단

<p>총장 공로패</p>  <p>24회 동기회 대표</p>	<p>총동창회장 공로패</p>  <p>임성호 (36회) 동문</p>	<p>학장 공로패</p>  <p>우종우 (29회) 동문</p>	<p>동문회장 공로패</p>  <p>29회 동기회 대표</p>
 <p>김재영 (28회) 동문</p>			 <p>39회 동기회 대표</p>
			 <p>조은구 (45회) 동문</p>

2026년도 사업계획으로 개국, 병원, 공직, 산업 등 각 직역 동문회 활성화, 골프대회와 홈커밍데이 행사 등을 통한 선후배간 유대강화 및 홈페이지 활성화와 동문회보를 통한 분야별, 동기별 소통 및 기존 문자발송을 통한 회원 소식을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하기로 하는 등 소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했다.

## 동문회 차기 회장에 이해룡(28회) 동문 선임 28회 동기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이러 동문회 회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임기 1년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27회 동기회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으로 회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28회 이해룡 동문이 선임되었음을 공표했다.

이해룡 차기 회장은 선임을 받아들이는 인사를 통해 “동문회 여러 현안을 잘 파악하고 김정수 회장을 1년 동안 잘 보좌하며 동문회 발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차기 회장 재임시 동문회 발전을 이룰 것을 약속한다”며 28회 동기들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특별히 강릉에 거주하는 김학철(26회) 동문이 ‘민족은 영원하지만 국가는 영원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중앙대 약대 동문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중앙대 약대 동문들은 영원하나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사라질 것이다”며 우리 동문회가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 줄 것을 비장한 어조로 당부하며 모교 사랑의 마음을 전해 왔다.

뜨거운 분위기에 이끌려 동문회장과 같은 기수의 동명이인인 김정수(B) 동문이 독창으로 그리운 금강산과 냇수도르마에 이어 앵콜곡으로 동심초를 열창했고,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교가를 제창함으로써 총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참석한 내외빈들로는 김부섭 총동문회장, 이대영 상근부회장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고, 조의환(8회) 삼진제약 회장, 유정사(10회), 김현태(20회), 최광훈(22회), 권석형(23회) 고문, 조찬휘(15회), 손의동(22회) 자문위원, 서동철(23회), 이광섭(24회), 최두주(25회) 감사, 김인혜(29회) 여동문회장, 이경옥(19회), 김채영(28회), 김희식(28회) 여동문회 고문 등 많은 동문들이, 학교 측에서는 황광우(35회) 학장을 필두로 최영욱(24회), 황완균(26회) 명예교수와 함께 새로 약대 학장에 보임된 민경훈(39회) 교수와 이상길(41회)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재학생 홍보대사 파람 소속의 후배들이 안내와 사진촬영 등의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 사 임 의 辯



존경하는 동문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동문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준비하며 수많은 동문 여러분을 만나고, 많은 웃음과 땀, 그리고 벅찬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제 마음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아쉬움이 한꺼번에 물려옵니다. 2026년 2월말을 끝으로 저는 동문회에서의 역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번 고민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실장'이라는 자리는 저에게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하나의 가족이자, 제 삶을 지탱해 준 큰 기둥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동문회의 발전을 향한 저의 응원과 애정만큼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은 제가 걸어온 길을 든든히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눈빛, 그리고 함께 웃어주신 마음 하나하나가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과 동문회 곁에 머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6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 추억은 앞으로도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여러분의 영원한 박실장 울림



2026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통찰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약학전공 54명, 제약학전공 56명 총 110명의 약학사 배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26년 2월 12일 102관 (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영예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날 약학대학 3층은 여정을 마무리하는 졸업생들과 이를 축하하기 위한 학부모와 가족들, 교수진 및 내빈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약학전공 54명, 제약학전공 56명 등 총 11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약학대학 학부장 정선영 교수의 개식 선언으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연혁 보고 ▲내빈 소개 및 식사 ▲내빈 축사 ▲송사 및 답사 ▲학위 수여 ▲교내·외 시상 ▲교가 제창 ▲단체사진 촬영 ▲폐식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민경훈 학장, 황광우 전 학장, 나동희 전 학부장을 비롯해 많은 교수진과 학부모를 위시하여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한갑현 동문회 수석부회장,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사장 등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경훈 약학대학 학장**은 “학교와 동문이 한마음이 되어 여러분을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는 여기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약학 교육기관이라 자부한다”라며, “시와 자본이 전문직의 영역을 위협하는 급변의 시대에 보편적인 ‘평균값’ 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편차’와 ‘이상치’를 읽어내고 판단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또한 제약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바 스스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정한 성공은 지혜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가족을 보살피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는 ‘내면의 성숙’을 가진 사람이 되어달라”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한갑현 동문회 수석부회장은 동문회의 장학 및 멘토링 활동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의 도전을 응원했고,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신뢰받는 약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역시 “중앙은 세상의 중심이자 약학의 중심”이라며 졸업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길 응원했다.

이어서 이번 졸업식의 하이라이트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민경훈 학장은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수여하고 학사모의 태슬(술)을 넘겨줌으로써 학사로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단상에 도열하여 참석한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과 가벼운 손인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재학생 대표 서형주 42대 학생회장은 송사를 통해 선배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재학생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었음을 전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이에 졸업생 대표 박재성 40대 전 학생회장은 답사로 교수진과 가족, 동기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람을 돕는 약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진 학위수여식에서는 현수철 졸업생이 약학전공(54명) 대표로, 조수만 졸업생이 제약학전공(56명) 대표로 단상에 올라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술상 시상에서는 박규원 대학 수석 졸업생과 최우등 졸업생 8인을 비롯해 우등 졸업생 11인, 우수 졸업생 5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보 공로상 시상에서는 2023·2024년 교내 홍보대사 ‘파람’으로 활동한 김소연, 김예빈, 이승현, 조민경, 조수만 졸업생이 수상했으며, 봉사 공로상 시상에서는 2024년도 약학대학 40대 학생회장을 역임한 박재성 졸업생과 40대 부학생회장을 역임한 이민진 졸업생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교외상 시상에서는 졸업생 25인에게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됐으며, 교가 제창과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학위수여식은 큰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다.





약학대학 동문회 2026년도 초도이사회

# 전지 이사회 충주忠州를 가다

별난 동문 이야기(본 회보 37권, 2016년 겨울호)에 실린 김정수 회장의 하이텍팜 관련 글을 보며,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충북 음성에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갖춘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그의 나이가 겨우 40세였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이 회사는 2007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FDA 승인을 받은 카바페뎀계 항생제 생산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제품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조성된 공장을 견학할 수 있었다.

헨리 밀러(Henry Miller)는 “모든 성장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며, 경험의 이익 없이 이루어지는 즉흥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행위다(All growth is a leap in the dark...)”라고 말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줄어든다. 그러나 때로는 다소 무모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무모한 도전이란 철저히 계획되거나 계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든 뒤 그 다음을 지켜볼 뿐이다.

공장 내 갤러리에 전시된 두보의 ‘춘야희우(春夜喜雨)’는 봄비를 맞이하는 기쁨과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기운을 담은 작품이다. 이는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균형과 풍요를 강조하는 김정수 대표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청장]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2026 초도 이사회**

☐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 집결: 오전 8:00 대한약사회 앞 (지차 이동 가능)
- 장소: 디베이스 호텔 (충북 충주시 호림대로 8), 하이텍팜 충주 공장

○ 상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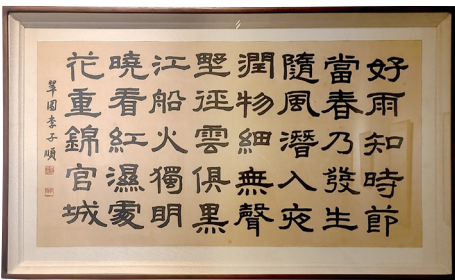
1. 08:00 출발 (대한약사회)
2. 10:00 충주 디베이스 호텔 도착
3. 10:00 ~ 11:00 초도 이사회 및 축하 공연
  - 회장님 환영인사 및 일정 안내
  - 26기 축하공연 (윤용학: 트럼펫 연주, 김정수: 가곡 연주)
4. 11:00 ~ 12:00 점심 뷔페 및 원담 (단체사진 촬영)
5. 12:00 ~ 14:00 호텔지 산책 및 디베이스 호텔 출발
6. 14:30 ~ 15:30 하이텍팜 방문 및 귀가

♥ 안내 및 참석 회신

- 원활한 행사를 위해 집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지 산책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 주세요.
- 문의: 사무국 번호 (010 9561 2035)
- ▶ 참석 회신 기한: 2026년 3월 8일(일)까지 사무국으로
- “의심중앙, 하나 된 역대인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장 및 집행부 일동

PHARMACY



어릴 적부터 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고향 충주에서 열린 초도 이사회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날씨가 화창해 마치 행사를 축하해주는 듯했다. 행사장의 좌석 배치 등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한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과거에는 저수지와 공동묘지 등으로 인해 다소 음산한 분위기의 소문이 돌기도 했던 호암지는 현재 둘레 4km의 아름다운 유원지로 탈바꿈했다. 주변에는 연꽃공원, 택견 전수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산책 및 생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탄금대, 충렬사, 충주박물관 등을 찾고 있다.

겨울에는 시민들이 모여 스케이트를 타고, 여름에는 보트를 즐기며, 주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거나 낚시를 즐기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러한 추억 속에서 1960년대 호암지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본다.

초도 이사회를 마치는 동안 몸이 불편하셨음에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허인회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 전지 이사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한다.



# 하나되는 동문회 49년의 세월을 잇는 푸른 필드 위의 화합 2026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마치며

신록이 짙어가는 4월의 마지막 일요일, 안성 이글몬트 CC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과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2026 동문 친선 골프대회'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100여 명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했던 그 감동적인 현장의 기록을

동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골프대회 준비위원회 -

## [ 세대를 아우르는 49년의 동행: 10회부터 59회까지 ]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10회 대선배님부터 59회 막내 동문까지, 무려 4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함께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60년대 학번 선배님의 노련한 샷과 10년대 학번 후배의 패기 넘치는 스윙이 한 경기에서 어우러지는 풍경은 오직 우리 중앙 약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의 저력이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선배님들은 후배들에게 약업계의 경륜을 전하고 후배들은 선배님들께 젊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필드 위에서 나눈 대화들은 49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무색할 만큼 따뜻했으며, '중앙 약대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 변화를 향한 노력: 젊은 동문들과의 교감 ]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기획하며 '젊은 동문의 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제된 조직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모바일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신진 동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수 간의 문턱을 낮추고, 골프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배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학번에 최대한 홍보하였으며, 다행히 03학번의 참여로 11학번까지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젊은 피가 수혈되어 대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후배 동문들이 보여준 열정과 참신한 감각은 우리 동문회가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미래가 밝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젊은 동문들이 우리 동문회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 역사와 전통의 중앙약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부심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약대 동문 조직입니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약업계를 선도하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 왔습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이러한 우리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우리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후배들이 이어받고,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전통이 완성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동문애가 우리 동문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든든한 버팀목: 협찬사와 후원 단체에 대한 감사 ]**

골프대회는 동문회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별도 행사로, 이번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품격 있게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동문 기업과 관련 단체들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모교와 동문회를 향한 사랑으로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협찬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문회 회장님 하이텍팜(김정수 대표이사, 26회), 비엠아이코리아(이광인 대표이사, 25회), 안국약품(박인철 대표이사, 34회), 편한가(남우현 대표이사, 49회) 등 동문 기업들의 헌신적인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문 기업은 아니지만 선뜻 후원을 진행해준 일동헬스케어(박하영 대표이사) 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연제덕 회장)와 중앙대학교 총동문회(김부섭 회장)의 격려와 후원은 우리 중앙 약대 동문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소중한 정성은 대회 운영은 물론, 참여한 동문들에게 돌아가는 기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 동문회 유지를 위한 제언: 동문회비 납부의 의미 ]**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동문회비는 장학금 조성 등 후배 양성을 위한 활동과 동문회보 발행, 그리고 이번 골프대회와 같은 화합의 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동문회비 납부는 중앙약대 동문으로서의 소속감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자, 우리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원입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우리 동문회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성이 모일 때, 우리 동문회는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숭선수범과 후배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우리 동문회가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의 인사와 마치는 글 ]**

화창한 봄날,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100여 명의 동문 여러분과 대회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신 김정수 회장님, 김부섭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 준비를 위해 헌신해주신 준비위원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필드 위에서 나누는 따뜻한 정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과 함께 더 넓은 소통의 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와 참의 정신으로 뭉친 중앙약대 동문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 마이크로바이옴 장-뇌축 이론

## microbiome gut-brain axis; MGBA

편집위원회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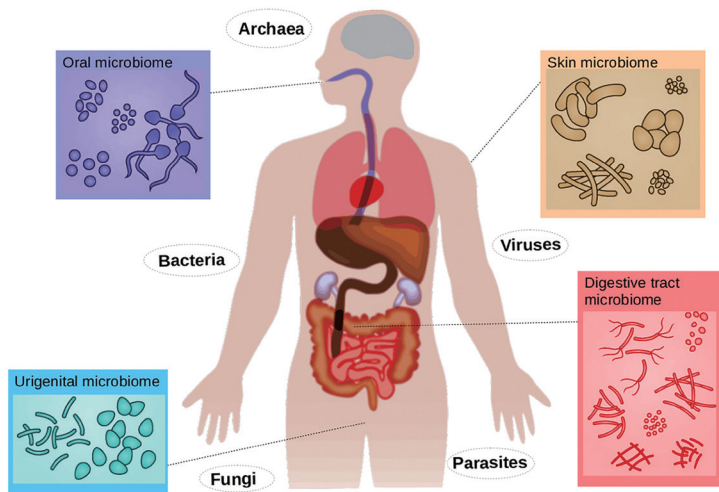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고 갈파한 바 있다. 1857년 프랑스의 파스퇴르가 포도주에 들어있는 유산균(LAB; lactic acid bacteria)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수없이 명명하는 의약품들 속에서 ‘21세기 의약품’ (the medicine of the 21st century)으로까지 지칭되고 있다.

단순히 장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초기의 소극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비만, 알레르기, 아토피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예방, 면역력 증진, 암 예방에 이어 노령화시대 최고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에 이르기까지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정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특정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생태계의 합성어로, 우리 몸속에 공존하며 서식하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군집(microbiota)과 그들의 DNA, RNA, 단백질 등의 유전정보(genome)를 포함한 환경 전체를 의미한다. (⇨ microbiota +genome = microbiome)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종이 균형을 이루며 서식하는데, 인체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주로 세균(bacteria)이지만, 바이러스(virus), 고균(archaea), 곰팡이(fungi), 원생동물(protozoa)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인체내 마이크로바이옴

### 마이크로바이옴 = 제2의 장기

인체내 미생물은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주로 존재하며, 호흡기, 생식기, 구강, 피부 등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인체 미생물의 90% 이상이 서식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불과 인간 체중의 1~3%를 차지하면서도 면역 조절, 영양분 흡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제2의 장기', '제2의 뇌' 또는 '제2의 유전체'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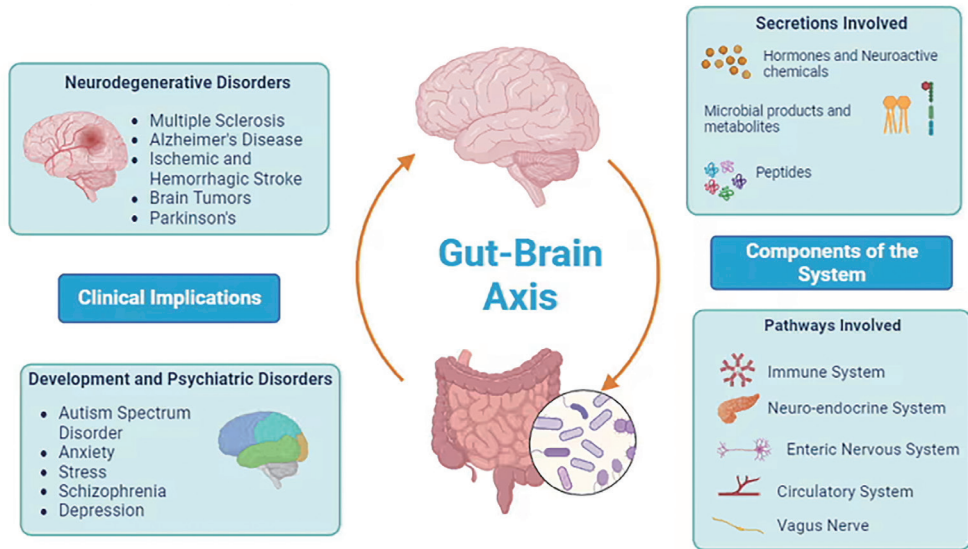
쉽게 말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인체 건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 제2의 장기

**주요 기능:**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미생물의 집합을 넘어 우리 건강 전반에 관여한다.

- ▶ **면역시스템 조절:** 외부 유해균의 침입을 방어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 ▶ **영양 대사 및 소화:** 인체가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 등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비타민 B와 K 등 필수영양소를 합성한다.
- ▶ **질병 예방 및 치료:** 유익균에 비해 유해균이 증가하여 그 균형이 깨지면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뿐 아니라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체 기관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뇌축 이론의 개요

### 장-뇌축(gut-brain axis) 이론

장-뇌축이란 간단히 말해 뇌와 장내 미생물 사이에 구축된 핫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거나 장 건강이 악화되면 뇌 기능과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과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뇌와 장의 연관성을 잘 지적해 준다.

장과 뇌는 해부학적으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군집이 중추신경계와 소통하는 여러 경로가 존재한다. 즉, 위장관과 중추신경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생리적 과정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위장관내에 존재하는 미생물군집이 정신 및 뇌/신경계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생학적으로 출생 후 장내 미생물이 발달하는 시기는 뇌와 위장관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과 두 기관의 발달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 위장관계와 중추신경계는 양방향 소통

실제로 위장관계와 중추신경계는 면역 체계, 미주신경, 장 신경계, 신경내분비계, 순환계 등을 통해 대사물이나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등을 이용하여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경전달물질이나 그 선행물질의 상당 부분은 장내 미생물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은 95%가 장에서 생산되는데,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고 세로토닌이나 그 선행물질인 트립토판을 생산한다. 세로토닌은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결핍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

장내균이 생산하는 L-도파는 흥분과 쾌감을 전달하는 도파민의 선행물질이고, BDNF는 뇌에 영양을 주는 물질이며, GABA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는 물질이다. 도파민은 뇌혈관 장

벽을 통과할 수 없지만 L-도파는 뇌 안으로 침투하여 도파민으로 변환할 수 있어서 파킨슨병 치료에 이용된다. BDNF는 기존 뇌세포를 강화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물질이다.

다시 말해, 장내 미생물에서 생성된 물질이 말초 및 손상된 혈액-뇌 장벽(BBB)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운반되거나, 숙주 면역체계와 상호작용 하거나 혈액순환 또는 림프관을 통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신경 경로** : 미주신경(vagus nerve)은 척추동물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장과 뇌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데, 장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구심성 섬유와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원심성 섬유가 80:20의 비율로 구성된다. 즉,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장에서 뇌로 전달되는 것이다.

▶ **면역 경로** : 장은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모여 있는 면역의 중심지이다.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유해균이 증가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생성되고, 이는 전신을 통해 뇌에 도달하여 신경염증, 우울감, 피로와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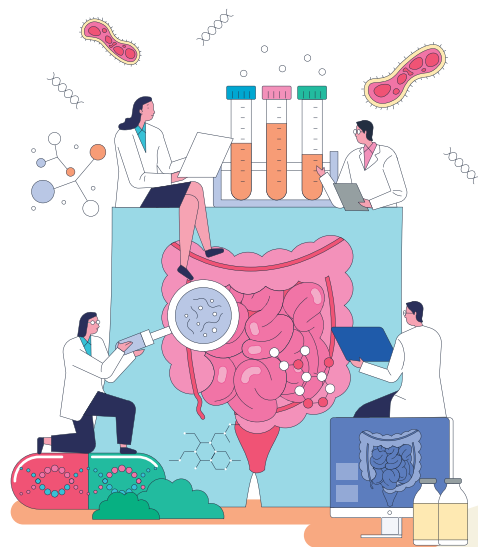
▶ **대사체 경로** :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쇄지방산(SCFA), 세포벽의 펩티도글리칸 혹은 지질 다당류 같은 미생물 연관 분자들이 장점막이나 점막하 구심성신경에 직접 신호를 전달하거나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각종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게 하고, 이것이 신경생리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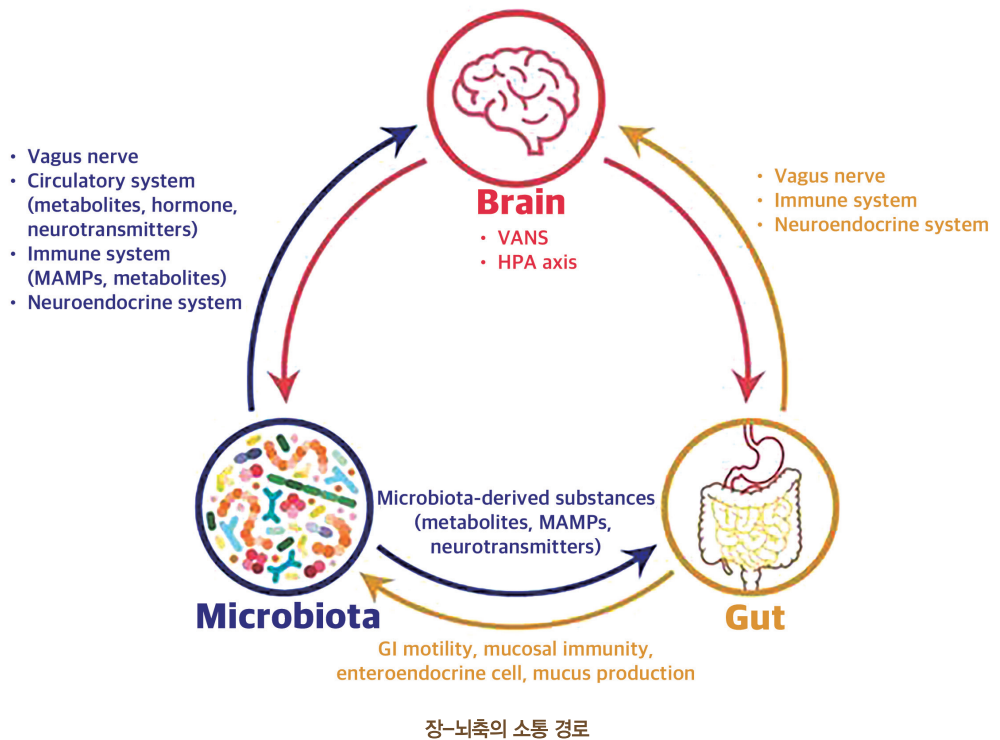
▶ **호르몬 경로** : 장에서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의 전구체가 생성되며, 이들 호르몬은 기분, 수면, 식욕 등을 조절한다.

예컨대 장내 미생물이 장 상피에 존재하는 내분비세포를 자극해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이 세로토닌이 신경을 자극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장-뇌축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 단서가 된다.

▶ **미생물 경로** :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뇌 기능과 정신 건강에 직결된다. 평소에는 몸에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균형 상태를 이루다가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균형이 깨지면 해로운 균이 증식하게 된다.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된 호르몬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의 성장은 억제하고 일부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한다. 이런 변화는 장 점막을 약화시키고 미세한 손상부위에서 염증반응을 유발한다.





**파블로프의 실험**

뇌와 장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는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1897년에 발표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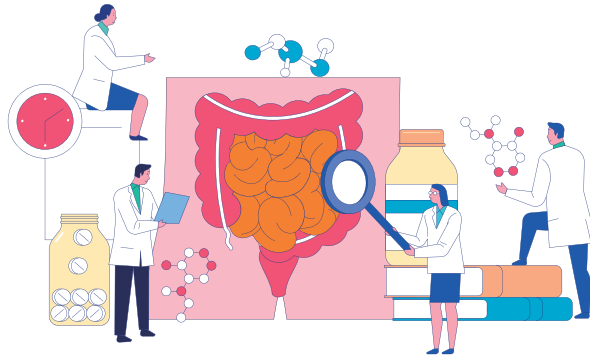
파블로프가 규칙적으로 개에게 음식을 주었더니 음식을 주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침을 흘리더라는 실험은 이제 음식이 올 것이라는 뇌의 신경기능이 침샘에 신호를 준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 몸은 맛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위와 장에서도 소화효소를 미리 분비해 소화시킬 준비를 한다.

**HPA axis**

이런 작용은 대개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HPA axis(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가 있는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hypothalamus)가 바로 아래에 달려 있는 뇌하수체(pituitary gland)에 신호를 주고,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래쪽에 있는 부신(adrenal gland)으로 신호를 보내 부신피질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며 우리 몸 곳곳의 기능을 돌보는데, 그중 한 가지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긴장하면 침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다. 외부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HPA axis를 혼란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즉, 뇌가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과다 분비되면 장의 연동을 비정상적으로 항진시키거나 억제해 복통, 설사, 변비 등을



유발하고 장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 장벽을 약화시킨다. 결국 장내 유해물질이 혈류로 유입되면서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촉발된다.

###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제품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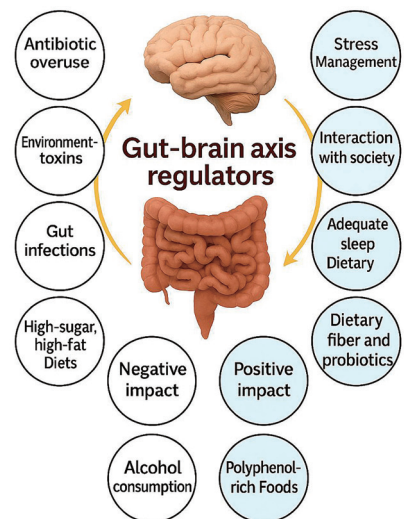
시중에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유익균 자체를 말한다.
- ▶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을 말한다.
- ▶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 : 유익균이 먹이를 소화한 후 생성하는 대사산물로, 열과 산에 강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장점이 있다.

###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유지 방법

- ▶ **식단 관리** : 현미, 호밀 등 통곡물과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
- ▶ **발효식품 섭취** : 김치, 요거트, 콤부차, 낫또 등 미생물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 ▶ **생활 습관** : 적당한 운동과 야외 활동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HPA 축을 안정화하며, 충분한 수면은 장내 미생물 리듬과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
- ▶ **항생제 남용 주의** :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제2의 뇌'라 불리는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 장-뇌축 이론의 핵심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인자



#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감정의 정령' 티니핑들을 만나다



-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우표 발행에 부쳐 -  
산수(傘壽)의 약사, '티니핑'의 세상에 발을 들이다.



오늘 우체국 창구에서 화사한 핑크빛 우표 한 시트를 마주했다. 이름도 생소한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손주뻘 아이들이 열광한다는 이 작은 정령들이 그려진 우표를 손에 쥐니, 문득 55년전 처음 약사 가운을 입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 시절 우리는 조제실에서 약은 분쇄하고 시럽을 섞으며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긴 세월동안 환자와 마주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의 몸 만큼이나 마음의 '정령'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이 우표 속 캐릭터들이 아이들의 다양한 감정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나니, 오래된 조제대 위에 핀 한송이 꽃처럼 반갑게 느껴진다.

처방전에는 적을 수 없는 '마음의 정령'들 '티니핑'의 세계관에는 사랑의 요정(하츠평), 이해와 다정의 요정(나비핑), 쾌활하고 당찬 요정(뽀니핑), 모험심의 요정(실크핑) 등 인간이 가진 수만가지 감정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약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감정의 환자'들을 만났다. 불안에 떠는 환자에게는 믿음의 '티니핑'을 통한 확신이 필요했고, 외로운 독거 노인 분들에게는 '하츠평'의 따뜻한 온기가 가장 큰 보약이었다.



황 공 용(11회)  
초대 편집위원장

인공지능(AI)이 처방전을 분석하고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2026년 이후의 최첨단 시대라지만, 환자와 눈을 맞추며 그 안의 '우울핑'이나 '슬퍼핑'을 찾아내 다독여 주는 것으로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작은 우표 한장이 내게는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순수한 감정의 결정체로 다가온다.

**우표라는 타임머신, 세대를 잇다**

나는 평생 우표를 모아왔다. 약용식물부터 유구한 역사의 유물까지, 우표첩 한 권은 그대로 하나의 박물관이었다.

이번에 발행된 캐릭터 우표는 그 결이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하다. 이 우표를 편지봉투에 붙여 누군가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노년의 약사가 어린 세대에게 건네는 '공감의 손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이 작은 친구들을 나도 알고 있단다.'라고 말하며 세대의 벽을 허무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 셈이다.

80세의 '산수'에 마주한 이 화려한 우표들은 내 삶에 여전히 호기심과 젊음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준다.

**모든 동문 약사 동료들에게!!!**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약사의 전문성이 존재하는 곳일 뿐 아니라 마음의 희노애락이 모이는 사랑방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 발행된 이 예쁜 우표들처럼 우리도 환자들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예쁜 정령들을 '캐치'해 낼 수 있는 해안을 가졌으면 한다.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는 조제권을 일부 기계와 나누었을지 모르나 '감정의 처방전'은 영원히 우리 약사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 내 책상위에 놓인 티니핑 우표들이 나에게 속삭이는 듯하다. '약사님~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세요'라고~




---

## 나라는 가수 in Spain - 마요르카 대성당의 추억

---

2024년 11월 어느 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눈에 익은 건물이 스쳐 지나가길래 잠깐 스톱, 뭐지 하고 들여다 보았다. '나라는 가수 in Spain'이라는 프로에서 스페인하고도 마요르카하고도 마요르카 대성당 앞에서 가수들 몇몇이 버스킹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 바르셀로나 · 마요르카 · 그라나다, 그리고 와인

좋은 음악과 함께 나도 모르게 잠시 2018년 2월의 추억을 되살려냈다. 서울에서부터 따라온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바르셀로나의 호텔 방에서 여정이 시작되었다.

먼저 몬세라트 수도원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옛 로마의 정취가 남아있는 타라고나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시체스 해변에서 빠에야를 즐겼다. 피카소 박물관에서 산 돈키호테 티셔츠를 아직도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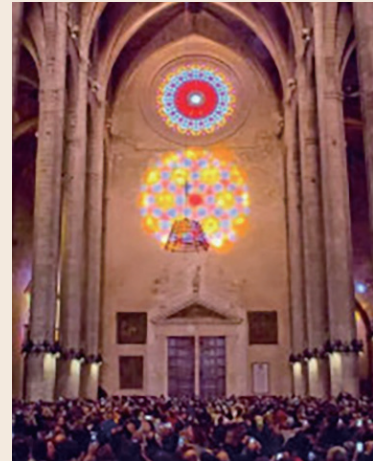
이어 마요르카섬으로 건너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마요르카 대성당을 둘러보고, 4천 개가 넘는다는 동굴 중 하나를 야생 염소의 영접을 받으며 탐방했다. 독일인 가이드와 함께한 미각기행에 흠뻑 빠졌던 밤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이후 로얄 채플과 그라나다 대성당과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에서 집시와 플라멩고의 끈적끈적한 열기를 느끼며 비장함에 잠기기도 했다.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구엘 공원에 이르는 가우디의 발자취를 두루두루 경험하는 전 일정을 단 하루도 빠지 않고 타파스와 와인을 벗삼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이 새롭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 (이슬람 + 고딕 + 가우디) = 마요르카 대성당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마요르카섬의 주도 팔마로 들어갔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섬으로, 연중 온화한 기후로 인해 지중해의 낙원 또는 지중해의 하와이로 불리는 천혜의 휴양지다.

거기에 마요르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마요르카 대성당 (Palma de Mallorca Cathedral)이 있었다. 가이드는 이 대성당 건축에 수백 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말로 어깨에 힘을 주었다. 알아보니 아라곤 왕조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마요르카섬을 탈환한 직후인 1229년 착공되어 370여 년에 걸친 건설 끝에 1601년 완공되었다고 한다.

특징적으로 뾰족하게 솟은 첨탑이 눈에 띄는 고딕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 건축되다 보니 여러 양식이 혼재된 독특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후 지진으로 파괴된 대성당의 재건에 가우디가 참여함으로써 말하자면 원래 있던 이슬람 양식의 토대 위에 중세의 고딕양식이 중심을 잡고 그 위에 현대의 가우디 미학까지 녹아 들어간, 요즘 말로 퓨전 양식의 걸출한 건축물이 탄생된 것이다. 사암을 주재료로 사용해서 외관은 전반적으로 모래와 같은 노란색을 띠고 있다.

워낙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해변가 전망 좋은 곳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위용 앞에 다른 설명이 길게 필요하지는 않았다.

### 오초 현상(Espectáculo del Ocho)

그날 시간이 맞지 않아 내부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가이드는 여기서도 피할 수 없는 가우디와의 인연과 1년에 두 번

기적을 연출한다는 장미창(rose window) 설명에 침을 튀겼다. 지진으로 파괴된 성당의 재건 작업에 1904년 가우디가 참여했는데, 자연채광을 중시한 그의 특성대로 원래 있던 창문을 더 크게 만들고 벽으로 막혀있던 곳을 뚫어 내부까지 빛이 도달되도록 했다. 지중해의 태양빛으로 성당 내부의 색감과 빛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건물 앞뒤로 고딕양식 성당의 특징인 장미창이 양쪽에 마주 보고 있는

데, 지름이 20미터에 달하는 원형의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가 1년에 두 번 2월 2일과 11월 11일에 8자(ocho) 형상을 나타내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한다.

가장 큰 장미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 반대쪽 장미창 바로 아래의 벽에 반사되어 마치 숫자 8을 연상시키는 빛의 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윗부분의 원 모양은 당연히 원래 스테인드글라스의 그것이고 밑에 있는 원은 빛이 만들어낸 그것이다 (Espectáculo del Ocho; Spectacle of the Eight). 올해도 어김없이 8자가 나타났다는 설명을 가이드가 직접 찍었다는 사진으로 증명해 주었다. 우리가 간 날이 2월 8일이었으니 일주일 상관으로 장관을 직접 관람할 기회를 놓친 셈이었다. 무신론자의 한계인가 하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 '나라는 가수 in Spain'이라는 프로의 부작용

뛰어난 가창력의 소향과 화사하고 바이올린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헨리와 다른 몇몇 뛰어난 연주자들의 화음이 마요르카 대성당 앞에서 울려 퍼지는 모습이 감미로웠다. 그리하여 당분간 절주해야 한다는 약속을 깨고 집사람이 아껴주었던 와인과 하몽을 꺼내는 모습을 짐짓 못본듯 꿈인 양 바라보았다. 이는 모두 '나라는 가수 in Spain'이라는 프로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두기로 하자.



편지장드소서

[ 弔詞 ]

##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손 의 동(22회) 명예교수

즐거움 속에 인화가 된다(樂在人和)는 삶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을 석가탄신일에 보내어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스승님은 1937년 5월 26일 아버지 허 윤(潤), 어머니 윤갑례(甲禮) 선생님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은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이고, 김포초등학교를 마치고 1950년 4월 김포중학교에 입학, 1953년 김포농고를 입학하셨고, 1956년 중앙대 약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중앙대 약대를 선택한 이유는 한약에 밝은 이승길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으로 당시 중대 약대 경쟁률이 18대1이었고 김포농고에서 약대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사학위(1963년)후에 김절자 사모님과 결혼인연은 1967년 10월에 전임강사 시절이었으며 슬하에 2남(二男, 돈행과 문행)을 두었고 손주는 3명입니다. 장남은 약대 및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유학, MBA를 이수하고 미국에서 약사로 CVS를 운영하며, 차남은 학위취득 후 베지밀(주) 연구소에서 중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교수님은 늘 인자하시고 약물학전공외에 분석학, 물리약학, 독일어등 학문영역이 넓으셨고 교육행정가로서 솜씨를 발휘하셨습니다. 1987년 중앙대 재단이 재일동포 김희수 재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9월부터 학생처장직을 맡게 되고, 학내는 시국에 대한 항거로 데모하는 와중에 1989년 3월에 약대 학장으로 2년간 보직을 맡았습니다. 199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약대평가를 준비로 학장(의약식품대학원장 겸직)으로 재 추대되어 1997년 약대가 최우수대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2년 8월까지 근 35년을 교수로 봉직으로 하시며 국내외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박사 27명 석사 125명의 제자들을 배출시켜 전임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약회사등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자사랑은 끈찍하셨고 筆者가 美브라운 의과대학으로 유학할 당시 장학금을 선뜻 지원하셨습니다. 정년식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때론 경쟁심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교수란 직업이 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더라도 전 교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약학회, 응용약물학회에 부회장, 독성학회, 호주임상약학회 등에 회원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안전대책위원, 국립보건원 국가시



故 중앙 약대 허인회 명예교수 (4회)

협교정위원, 의료보험공단 진료비 심사위원,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한국마사회 약물검사 자문위원, 약사공론 모니터위원 등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기고문은 유한양행 버들블레틴, 월간약국, 약업신문의 질병치료, 동아약보 약물연재, 약사공론의 질환탐방, 신풍제약 사보에 생활속의 명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씨 가문의 영향으로 문장 글귀와 풍류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셨습니다. 학위를 받으시거나 유명하신 선후배에 아호를 직접 붓글씨로 작성하시어 하사하셨습니다. 특히 연구년을 1991년에서 1992년 2월까지 시드니 대학 약리학 교실에서 공부하셨는데 호주도서관에서 문장가들의 영역본을 복사해 오셨습니다. 2002년 정년 후 이것을 여가로 선용하시어 3개국어 '한자-한글해설-영어'로 엮어 낸 사실은 실로 대단하시었습니다. 즉 당송(唐宋)시대의 시선집(詩選集)을 팔순까지 12권 詩選集 이백(李白), 두보(杜甫), 왕유(王維), 한산(寒山), 맹호연(孟浩然), 백거이(白居易), 도연명(陶淵明), 이상은(李商隱), 가도(賈島), 위응물(韋應物), 소식(蘇軾), 당(唐)시선집으로 편역 저술하였고 2021년에는 한유(韓愈)시선집 출판으로 13권이 되었습니다. 책을 써 나누어 주는 것도 재미있고 즐거움 중에 인화가 된다고(樂在人和) 말씀하시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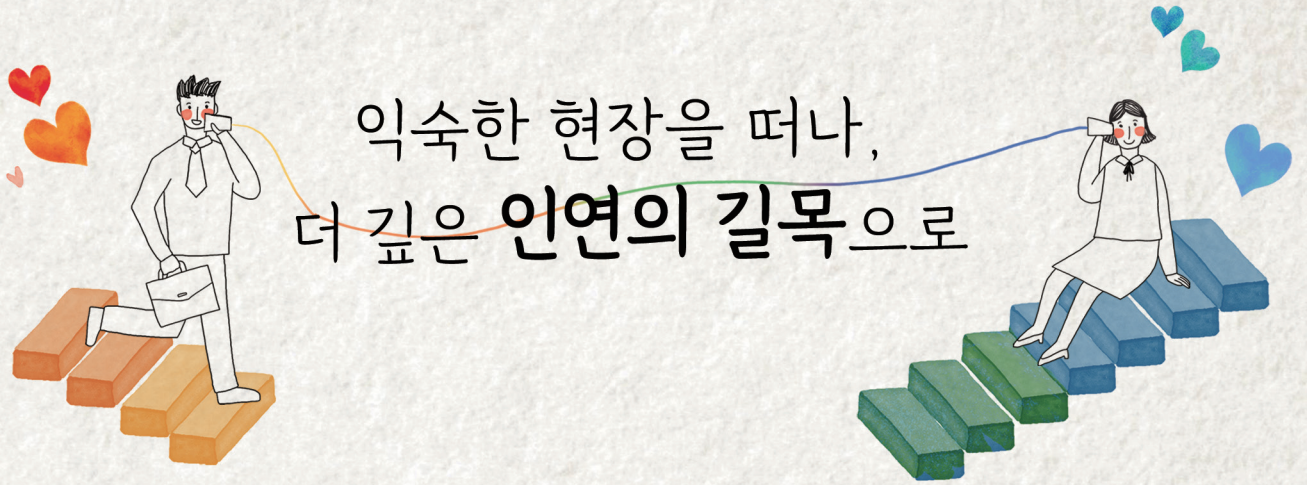
제자들의 모임(樂山會 모임, 산을 즐겨하셔 만드심)에서 2016년에 팔순잔치도 열어 매우 흐뭇해하시고 취미로 우표 수집대가이기도 하시었으며 1974년부터 백남빌딩에서 외국인이 하는 physical fitness를 배워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인생오복수위선(人生五福壽爲先, 오복중 장수가 우선)이라 하시며 90세를 이으셨습니다. 사는 날까지 유호덕(攸好德 덕망베품), 고종명(考終命 편안한죽음)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안타깝습니다. 올해 3월 약대 동문회 초도이사회에서도 건강하게 대면했는데 가실 때 질병고통을 없게 할 정도로 하고 가시겠다고... 몸소 실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허교수님께서서는 佛心이 강하시었고 거룩하고 축복받은 부처님 오신 날 영면하시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늘 행복하시며 영생하실 것입니다.

편히 잠드시소서...



## 익숙한 현장을 떠나, 더 깊은 인연의 길목으로

**24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긴 세월을 제약회사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치열했던 비즈니스 현장과 익숙했던 업무들을 뒤로하고 그 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으로 아이들과 집에서 소소한 일상을 지내던 중, '동문회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올 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의 긴장감과 또 다른 설렘과 묵직한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동문회의 굵은일을 도맡아 하며 헌신해 온 박은희 실장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옵니다. 워낙 오랜 시간 우리 동문회 살림을 챙겨온 전임자였기에, 과연 제가 그만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우리 중앙대 약대 동문 선후배님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 덕분입니다. 흑석동 언덕에서 함께 고뇌하고 성장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서로의 끌어준과 밀어준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려 하면 두렵지만, 든든한 선후배님들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기에 저는 기꺼이 이 가교의 역할을 맡아보려 합니다.

모교의 교정은 변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공유하는 자긍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약업계를 이끌어가는 중앙대 약대인들이 언제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친정 같은 동문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툰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 따뜻한 조언의 손길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제품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동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잇고 동문회라는 공동체의 온기를 지키는 일에 제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서툰고 부족한 첫걸음이겠지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 따뜻한 조언의 손길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경 은(43회)  
신임 사무국장



## 신임 학장 및 학부장 취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학장을 맡게 된 91학번(39회) 민경훈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스크립스(Scripps)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쳐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8년 3월 모교에 부임한 이후로는 의약화학 강의와 함께 중앙 및 면역 조절 관련 저분자 합성 신약 개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 한국연구재단 신약단 전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학문적 성과가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하며, 우리 후배들 앞에 놓인 길이 얼마

나 넓고 의미 있는지를 거듭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장직을 맡은 지 아직 석 달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깊이 느낀 것은 동문 여러분의 학교와 후배를 향한 한결같은 따뜻한 애정입니다.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이 견고한 토대가 오늘날 우리 약학대학의 가장 큰 힘임을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훌륭한 약사를 길러내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이끌고 보건 의료계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장으로서 예의와 겸손함을 갖추면서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동문과 학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 대학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우리 약대의 앞날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선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2005년 졸업)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및 약물역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보건 의료연구원과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중앙대학교 약학

대학 임상약학 분야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물감시와 약물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자가면역질환 등 면역매개질환, 호흡기·감염질환 분야의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 평가, 그리고 약사의 의약품 안전사용 활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 학회 및 국가 전문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부장을 맡게 됩니다.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과 함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6회계년도 회비내역 2026년 1월 ~ 2026년 5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6회	권송상, 김기형, 김안식, 김윤수, 김정수A	31회	이혜정	
	김정수B, 김학철, 나종우, 박병섭, 박상철	33회	조호원	
	반수호, 박주돈, 선우일원, 윤용혁, 이종량	35회	이경선	
	양승훈, 유영한, 이영준, 이희영, 정기춘, 조병호	36회	우경아	
	최민규, 하재일, 한갑현, 황원선, 황완균	39회	한은경	
28회	이해룡	41회	최명수	
29회	김인혜, 류형준, 이강현, 우종오	43회	김만석, 이경은	

이사회비				150,000원
4회	김현용	24회	이광인	
10회	심수일	25회	조순현	
11회	김창중, 황공용	27회	현기원	
12회	염윤기, 심재웅	29회	김은진, 엄재우	
14회	김윤국	30회	김해승, 김혜수	
16회	백승복	32회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8회	김기명	34회	한일권	
20회	김영식, 류화송, 이영희	39회	민필기	
21회	김수배	40회	황세은	
22회	손의동, 이현희	41회	최진희	
23회	권석형, 김수중, 박희용	51회	김영민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손광자(9회), 심재창(12회), 박광자(12회), 이수걸(13회), 김태성(17회) 김관식(25회), 김기형(26회), 문현미(28회), 이경준(32회), 박경록(33회), 진정주(38회), 신순옥(39회) 구영준(41회), 이지윤(46회), 김태영(55회), 김양균(62회), 박창국(66회)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6-001-573301  
**예 금 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사회비 150,000원 일반회비 30,000원

일반회비		30,000원	
9회	노신희, 이효식, 한정희	36회	유수미, 이현전
12회	오형철	37회	김동순
13회	김태종, 이우식	38회	백현준, 윤상배
15회	이영운	39회	김성용, 권연정(100,000)
16회	최승호	40회	위정미
17회	신승백	41회	구영준, 이진희
19회	장명섭	43회	김효진, 김효연, 신명숙, 심상미, 안태희, 이광재 이강호, 장선영
21회	우건상, 조복	44회	신보경
22회	강명희, 정진호	45회	김호현, 권영삼, 조동환
23회	공인호, 김봉래	46회	강병균, 민정식, 이동훈
25회	김선열	65회	김소라
28회	김형준	70회	윤아현, 김예리, 신지현, 이은표, 이우찬, 임원희 우시원, 한정민, 허수진, 박재성, 손채린, 곽지예 김예은, 김지윤, 이혜리, 노승희, 차재혁, 박세웅 서수아, 김나영, 남예림, 조수만, 인준서, 손채은 박혜빈, 이예빈, 서지은, 천승희, 최재은, 조민경 이윤상, 정민지, 최민정, 이정민, 천영주, 송주영 이민진, 김소연, 구여진, 안소연, 한승연, 전건표 이경민, 신유진, 이혜윤
29회	김선희, 김인범, 이종수, 유인석, 장귀연		
30회	김현학, 최현희		
31회	김향수, 류문숙, 송소연, 오대근, 우광익		
32회	강규선, 김삼숙, 김선자, 김순자, 김윤경, 김현경 문성숙, 박래경, 박재홍, 서완석, 신난월, 안정은 이승연, 이종은, 임형미, 유귀숙, 육재분, 윤준호 윤형중, 이효숙, 장수경, 정미영, 최영란, 함인혜 허강서		
34회	김영미, 김용수		

동문회보는 동문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동문회비로 제작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 거주 동문들에게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동문회비 납부, 동문회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 2026-1학기 약학대학 동문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학년	성명
1	본동문회, 미래인재부문	2,000,000	6	김정완
2	본동문회, 미래인재부문	2,000,000	6	서장호
3	본동문회, 미래인재부문	2,000,000	6	정인호
4	본동문회, 미래인재부문	2,000,000	6	조우진
5	여동문회, 미래인재부문	2,000,000	6	최나영
6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김윤정
7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정유나
8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박정은
9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노하은
10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정수인
11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심지훈
12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4	이다은
13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4	김민경
14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4	손경민
15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4	정준선
16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조수빈
17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최수빈
18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이승재
19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백민경
20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고희주
21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김혜원
22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유연서
23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6	윤시원
24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6	강민혁
25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임서연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학년	성명
26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5	이도영
27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4	유지연
28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4	남서윤
29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3	박정민
30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2	박서준
31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2	장태민
32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1	김한나
33	본동문회, 리더십부문	400,000	1	이해인
34	본동문회, 동문가족장학	2,000,000	5	이민호
35	본동문회, 동문가족장학	2,000,000	3	이택범
36	김두수 장학부문	2,500,000	3	김지민
37	물방울 장학금(26회 동기회)	1,000,000	5	최은비
38	물방울 장학금(27회 동기회)	1,000,000	5	김지민
39	28회 동기회	1,000,000	4	김재민
40	28회 동기회	1,000,000	2	오민서
41	32회 동기회	1,000,000	6	손동우
42	손의동	1,500,000	4	지승헌
43	생약반	1,000,000	5	박정훈
44	생약반	1,000,000	5	안수연
45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5	서형주
46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5	이나연
47	약품물리화학교실	1,000,000	5	이진서
48	약제반	1,000,000	5	정시엽
49	약제반	1,000,000	5	정예린
<b>합 계</b>		<b>41,200,000</b>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인생.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한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어릴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 없고 나이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산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떼를 읽었다. 벽돌책이다.  
서두의 차례, 헌사와 말미의 작가연보까지 치면 1권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키호떼  
52장 792페이지, 2권 기발한 기사 라 만차의 돈키호떼 74장 884페이지에 이르는  
민용태 교수의 에스빠냐어 완역본이다.  
감성적인 자세로 읽기 시작해서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가 이번에 못끝내면 다시 도전하기  
어렵다는 의무감으로 겨우겨우 억지로 죽을퐁 살퐁 온갖 인상 다써가며  
'미쳐서 살고 정신들어 죽다'는 한 구절 얻어냈다.  
제주 시는 지인이 전해준 언젠가 문인들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돈키호떼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술자리 후일담이 위로가 되었다.  
이제부터 수틀리면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안 읽어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경은(43회)  
사무국장

매번 받아보기만 했지 이걸 내가 직접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권의 회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관계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 그리고 유천문화사 덕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노바렉스 NOVAREX

Your NOVA LIFE partner,  
We light up your NOVA LIFE

노바렉스는 지난 30여년간  
오직 건강기능식품만을 연구, 개발, 생산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 오송공장 전경  
(오송2공장 증설중, 2027년 준공예정)



매머드급  
스마트 공장 플랫폼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품질관리 역량

시장독보적  
R&D 역량

빅데이터 기반의  
제안과 포뮬레이션 기획

원팀 고객 대응 프로세스와  
동반 성장 이념

##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UNG KWAN JANG



오송공장(본사, 생명과학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4로 80  
오창1공장(유산균전용) |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94  
오창2공장(연질캡슐전용) |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0  
오창3공장(앰플전용) |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홈페이지



상담문의

# BIVI KOREA AESTHETICS

## HITOX 하이톡스

제주에서 만든 보툴리눔 독신 제제



## Lilied 릴리이드

수분 가득 히알루론산



## VIVLE 바이블

DCA의 바이블:  
지방세포파괴 주사의 새로운 기준



## RENEFIL 르네필

PN과 가교HA, 리도카인의 만남





# 하이텍팜

High Tech Pharm

미국 FDA / 유럽 CEP 인증

## “건강증진에 공헌하여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하이텍팜은 세계 최고의 카바페넴계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caupharm53@gmail.com